

#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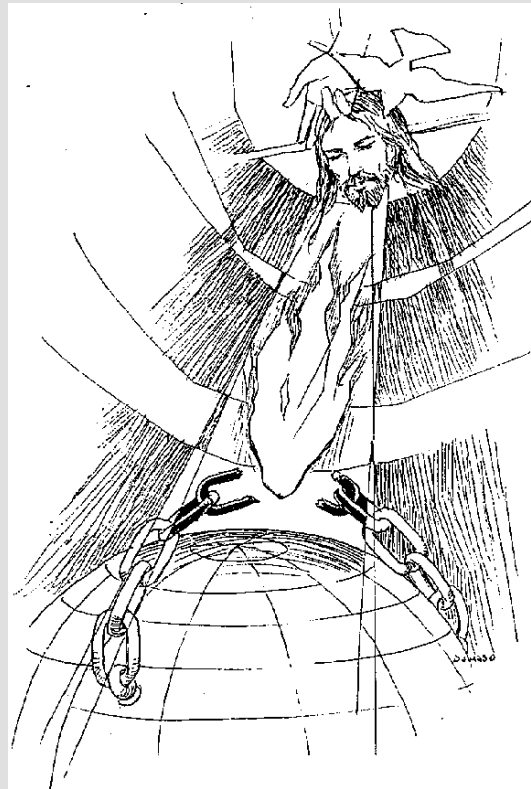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7년 8월 (제 38호)

##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20.** <sup>19</sup>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sup>20</sup>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sup>21</sup>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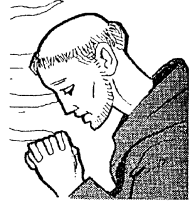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15. 평화>

- 1 "평화의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 2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 <제19과>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

#### 회칙 2장 생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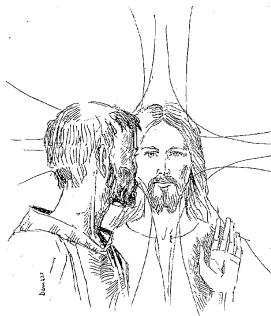
##### 제 19조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매인 죽음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회원은 성부와의 결정적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평화와 참된 기쁨은 프란치스코 영성의 열매이다.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사도’라 불리었듯이 우리도 평화의 전달자로 기쁘고 평화로운 죽음의 자매를 맞이 할때까지 이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한다.

**평화의 전달자** 진정한 평화란 하느님을 진실로 알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단순한 즐거움이나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평안함등 이기주의적일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듯이 어려움을 무릅

쓰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것이 참된 평화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셨듯이 이 세상이 정의가 꽃피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살았던 성인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해와달, 새와 양들과도 형제 자매로 평화를 맺었고, 가난한 이웃과 강도에게도 도움을 주어 평화를 만들어 나갔으며, 당시 적이던 술탄의 멜렉 엘 카멜을 찾아가 형제로서 평화를 이끌어 냈다. 성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삼위일



체의 하느님에 대한 확신으로 평화의 전달자가 되었다. 성인은 평화를 얻는데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된 평화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참되고 완전한 기쁨**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은 고통과 모욕, 수치, 불쾌함을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며 달게 참고 이겨내는 것이라 했다. 성령을 통하여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



#### 자매인 죽음과 성부와의 만남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순례자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재속프란치스코는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유롭게 하여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 할 준비를 항상 하여야 한다.

##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2007년 7월15일 한맘 성당에서 김기수신부님께서 북한동포의 어려움과 중국으로 탈북하는 동포들의 실태와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며 설명 하셨습니다.



♥ 7월13일-15일 연례피정에 66

명이 참석하여 김기수신부님의 '프란치스코의 삶'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든 기대에서 벗어날 때 참 프란치스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 7월 월보>

♥ 2007년 서약식, 6월24일 성 프란치스코, 성글라라, 풀베, 성디에고 네 형제회의 합동 서약미사와 입회식이 Orange County 성토마스 성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 매 5년마다 개최되는 미국국가형제회 행사인 Quinquennial Congress 2007이 'Many cultures through Francis in Christ'란 주제로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요셉, 주미셀, 권요한등 세명의 성디에고 형제를 포함 70여명의 한인 형제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디에고 형제회 2007년 7월 월보>

♥ 7월1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 오는 8월 지구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에 사목적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 이태리 성지 순례팀이 유수일 사베리오신부님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수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2007년 7월 월보>

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 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

##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지난 8월 22일, 23일 각각 Peace Fraternity의 Delores Saunders와 부회장을 지낸 John Cramer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요셉형제가 John Cramer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 최근 지구회장 캐런 오스틴과 지구 부회장 수잔과의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Forming Group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오는 11월 지구형제회 모임에서 Emerging Group으로의 자격을 신청할 계획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두만강목장의 김기수 신부님께서 여름비로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소식과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께서 10월5일경 북한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 <회계보고 7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1,396.65
수입	추가 캠프 회비	\$40.00	
	회비 (7월)	\$140.00	
지출	도서 구입		\$45.00
	미결 서약식 경비		\$1,000.00
잔고			\$531.65



존 크레이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이 번주에 Peace Fraternity에는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다. 두 번 모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참석해야 하겠기에 일하는 곳과 가까운 스카츠데일의 Casa에서 거행되는 존 크레이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한 때 Peace Fraternity의 부회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기억도 없는 형제였다. 검은 넥타이에 검정자켓을 준비하였다. 차에서 내리며 옷메무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채플로 향하였다. 입구의 팸플렛에 ‘In celebration of the life of John Cramer (존 크레이머의 삶을 기념(축하)하며)’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for your faithful people, life is changed, not ended (믿는이에게 인생은 끝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앞에 ‘celebration (기념, 축하)’란 말이 이해되게 하는 문구였다. 채플에 들어가 보니 꽤나 많은 조문객이 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옷차림이 나와는 다른 평상복에 가까운 차림이었다. 검은 넥타이나 검정드레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존 크레이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Peace Fraternity 형제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가 인사를 나누었다. 보통은 장례식에 가면 ‘표정관리’ 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곳 형제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미사 중에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잠깐 잠깐 육박하는 순간도 있었다. 미사를 마치고 존 크레이머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누고 싶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앞에 나와 다른 조문객과 나누는 시간이었다. 주례신부님의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존 크레이머의 작은 딸이 추억을 나누었다. 어린 시절 아빠로부터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수영장에 골프카트와 함께 빠진 이야기를 하며,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며 유머를 보였고 조문객들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아빠가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갈 때에는 골프카트는 밖에 나아두고 들어가거라’ 하셨어요.’ 할 때 다시 한 번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는 큰 아들과 매제가 나와 존 크레이머와의 즐거웠던 그리고 재미났던 추억을 나누었고, 또 그 다음에는 존 크레이머가 세상을 떠나기전 며칠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매가 나와 존 크레이머가 주위의 사람 하나 하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모두를 너무 사랑했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장례식에 가게되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주위의 어르신들을 걱정하고 그 분들이 계시지 않을 세상을 생각하며 슬퍼하곤 했다. 오늘 미사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픔에 잠겼는데, 혹 다음으로 이세상을 떠날 사람이 나 자신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내가 떠난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에 요세피나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자기를 나두고 나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앓된다고 하던 생각이 났다. 이제 막 8개월이 된 영채와 아직도 너무 어린 아이들을 나두고 떠난다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죽음의 자매를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나고 남게될 아이들과 요세피나를 생각하면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대책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해 두고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나를 버려야 얻는다’는 생각이 번뜩 들며, 별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아직도 언제나 ‘나’를 하느님 앞에 우선으로 두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를 버리면 ‘우리’가 될텐데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대상이 하느님과 온 세상에서 ‘나’하나로 갑자기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버리면 세상에 남게될 내가 사랑하는 모든이들을 하느님과 온 세상이 돌보아 줄텐데. 그 것을 이루기 위해 또 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언제쯤 나는 그런 주님에게 모두 의탁하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엄마를 보고 한 발자국 앞으로 발을 띄는 아기처럼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언제쯤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김요셉

